

2023-CR-02

작은연구 좋은서울 23-10

리터루족(Returoo) 삶의 경험 사례연구 : 다시 돌아온 캥거루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전혜숙



**리터루족(Returoo) 삶의 경험 사례연구
: 다시 돌아온 캥거루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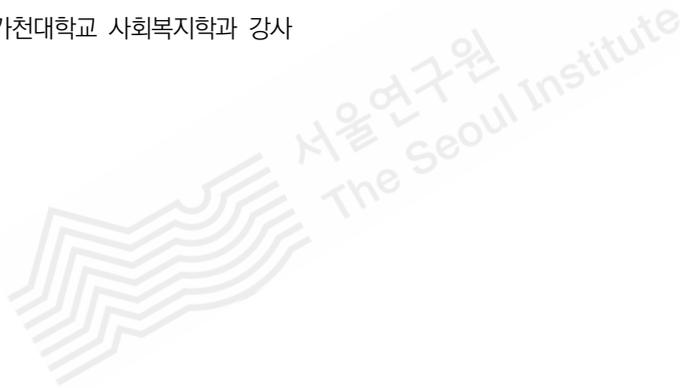


연구책임

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진

정하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 개요	1
1_ 연구 배경 및 목적	1
2_ 연구 방법	4
02 이론적 배경	7
1_ 청년의 독립생활	7
2_ 청년 리더루족	10
03 연구 결과	13
1_ 연구 대상	13
2_ 분석 결과	14
04 결론 및 제언	45
1_ 결론	45
2_ 정책 및 서비스 제언	50
참고문헌	55

표 목차

[표 3-1] 연구참여자 특성	14
[표 3-2] 주제	32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경기침체, 가족구조의 다변화 등으로 가구주 고령화 및 한부모가족 등의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혼화·비혼화로 인한 청년층의 성인기 지체 현상은 약화된 가족 부양 환경과 맞물려 가족 내 성인자녀 부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와 거주지 마련 비용의 상승은 성인기 자녀에게 실질적 성인기로의 이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23).

국무조정실의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 동거 청년은 57.7%, 부모 동거 청년 3명 중 2명꼴인 67.7%는 독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세정 외, 2022). 이 외에도 청년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252만 원이며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5.0%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었다(정세정 외, 2022). 이처럼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가 경제적 측면 때문이라는 점, 낮은 임금현황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실태를 고려할 때,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주거, 원가정 독립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포괄적 측면의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관련하여 서울시 청년의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볼 때,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에 의하면 서울 청년의 가구 유형과 관련하여 1인가구는 32.9%, 부모동거 가구는 49.9%로 나타났으며 청년이 예상하는 독립 나이는 평균 30세로 확인되었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학업 또는 진로준비 38.3%, 취업 29.0%로 조사되었다(김승연 외, 2022). 이처럼 서울시 청년의 경우 부모동거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 또한 30세로 나타나 대다수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나야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서울 청년의 47.3%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해결책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주택 형태는 월세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김승연 외, 2022). 이는 서울 청년의 경우 독립이 이뤄진 후 전체 생활비 중 월세 부담이 높을 수 있고, 청년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계속 동거하는 썬거루족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로 리터루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썬거루족이란 어미 배에 달린 주머니에서 자라는 썬거루처럼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며 리터루족이란 ‘돌아가다(Return)’와 ‘썬거루족’의 합성어로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가 주거문제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가리킨다(김유경, 2018).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나라마다 이들을 부른 명칭이 다르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부메랑 키드(Boomerang kids),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 독일에서는 네스트호커(Nesthocker)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강현선, 2016).

고물가의 직격탄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MZ 세대에 더욱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고, 높아진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독립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다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23).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물가에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공과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돈을 전혀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청년 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2). 이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높아진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와 썬거루족으로 사는 것이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리터루족의 등장은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으로는 성인이 된 청년들의 독립 및 결혼을 통한 발달단계 과업 성

취를 방해하고(강유진, 2016),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존적 성향이 강화되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게 된다(강현선, 2016).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면, 부모 세대가 성인기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및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South & Lei, 2015; Ward & Spitze, 2007), 경제적 취약으로 인한 빈곤 노출 가능성을 높이며(김유경, 2018), 새로운 독립가구 형성의 감소 및 기본적 가구소비 감축 등으로 소비시장의 경제불황(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부메랑 키드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활발히 가져왔으며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rundel & Lennartz, 2017; Sandberg, Snyder, & Jang, 2015; South & Lei, 2015). Tosi(2020)는 종단연구를 통해 부메랑 키드로 인한 부모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부모의 우울 증상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외에 Stone, Berrington, & Falkingham (2014)의 연구에 의하면 부메랑 키드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대학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 실업, 이혼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썬더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성인자녀의 부모의존 동거 질적 연구(강현선, 2016), 썬더족 가족의 관계유형화 및 예측요인 검증(정세미, 2018),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최연실, 2014), 부모동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강유진, 2016) 등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리터루족에 대한 면밀한 연구수행은 거의 실시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청년 리터루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노후를 성인기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양의 장기화는 부모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들어 노년 부모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한 성인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장기간에 걸친 동거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여 만성적인 가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강현선, 2016)을 고려할 때, 건강한 가족 유지 및 발달을 위해, 그리고 청년 세대의 독립 및 자립의 적절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촉구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리터루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리터루족이 되는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욕구 충족 및 문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의존하는 청년들의 삶의 경험을 상황적·맥락적으로 탐색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온 리터루족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2: 청년 리터루족에게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_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모집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하여 생활하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특성 파악 및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좋은 정보제공자를 선택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배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웠다.

첫째, 법률적으로 '성인'이란 민법상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인 만 25세 이상의 자녀(「청소년복지법」 제 3조에서 9세~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주거문제 및 실직, 취업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1~2회(1회: 약 1시간~1시간 30분)의 면담에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독립하여 생활하다 경제적 부담 또는 실직 등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거주하는 리타루족 당사자 7명이다. Morse(2004)는 사례 연구 연구 방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는 6명 이상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사례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질적 연구에서 현상은 큰 표본을 사용하지 않고도 탐구되고 발견될 수 있는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된 현상의 경험이 질적 연구의 중심이며, 개인의 특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진우, 2012).

(2) 모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등 13개 구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와 청년 주택 정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는 의도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 모집의 협조를 위해 ‘서울청년센터’ 및 네이버 ‘청년주택정보’카페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연구 참여 일정 등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기관 모집공고문 게시를 요청하였다. 서울청년센터 및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 중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에 관심 있는 자는 모집공고문의 연구 책임자 연락처를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전달하였다. 최종적으로 7명이 선정되었으며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였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연구 참여 일정을 조율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례 연구 분석을 위해서 Creswell(2013)이 제안한 사례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을 위해 ‘사례 내 분석’을 시도하였다. line-by-line 작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특정 행위와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질적 코딩을 통해 범주를 구성하고, 코드화하는 작업

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의 맥락, 역사,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정보노출은 사례자의 익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연구자들은 개인의 생애사를 모두 보여주지 보다는 독립과 다시 부모집으로 돌아온 경험 중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 위해 '사례 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특징 및 주요 현상에 대해 코드화 하고 이후 생성된 코드를 비교 및 대조작업을 거쳐 하위주제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주제의 세부내용 정리를 거쳐 명확한 주제를 명명하였다. 다소 모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진행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거리두기'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본 연구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01-202306-01-022)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관련하여 연구 내용 사전 안내 및 연구 의의와 관련한 내용 검토 및 의사 결정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때 철저한 비밀보장 및 안전한 자료보관, 인터뷰 내용의 녹음과 연구 참여 중도포기 할 경우의 불이익 없음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다. 개별 인터뷰 진행은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선정하였고,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도중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없었다. 인터뷰 진행 및 내용 분석은 사회복지 전공 박사로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 실무경험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2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녹취 내용에 대해 정확성 및 적절성 보장을 위해 2인의 연구진 이외에 사회복지 석사 전공자 1인과 함께 교차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녹취 내용과 더불어 현장 메모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고, 만약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할 경우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02. 이론적 배경

1_청년의 독립생활

1) 청년의 개념

청년(靑年)이라는 용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여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한자어다. 과거에는 주로 젊은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젊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의 성인 기준은 16세로 ‘이팔청춘’이라는 용어는 16세의 청년을 뜻하는 것이었다(권중돈, 2021). 당시에는 16세 이상을 청년이라 여기며 30대는 중년, 40대 이상을 노년으로 여겼는데, 점차 인생의 주기가 길어지면서 현대에 들어서는 청년에 대한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2020년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이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기준연령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의 기준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부분의 청년지원 정책은 19~34세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특칙을 두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자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정의가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안에서도 청년의 기준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서울특별시의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평균연령 47세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도봉구는 구의 현황을 고려하여 2023년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며 청년연령의 상한선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하여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명명하였다(뉴시스, 2023). 이처럼 같은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구별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어학사전에도 청년에 대한 내용은 연령을 특정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독립생활 이후 다시 부모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리터루족 청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청년의 연령 기준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사업인 LH행복주택의 청년입주자격을 참고하였다. LH행복주택의 청년입주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 및 「청소년복지법」과 서울시의 청년조례 현황 등을 토대로 청년을 2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개념을 특정한 연령으로 정의하였으나 청년의 특징인 성인기 이행기(Emerging adulthood)의 생애주기적 접근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청년의 독립현황

최근 보고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은 57.7%로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67.7%는 독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정세정 외, 2022).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박신애(2021)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혼 남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비율이 1인가구 청년보다 24.6% 높았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의 42.1%가 무직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만 19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56.7%로 나타나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15.5%) 보다 약 3배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저성장시대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구

조의 변화로 청년의 독립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학술연구 중에는 취업전문기업인 잡코리아가 실시한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2,327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인 79.2%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압박감이 상승했다고 응답하였다(스카이데일리, 2020). 또한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5.8%가 스스로를 썬거루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썬거루족이라고 응답한 청년 중 32.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썬거루족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스스로를 썬거루족이라 여기는 비중은 정규직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청년들이 실직 및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높아진 불확실성이 불안감으로 이어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리터루족 상태가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스타이데일리, 2020; 한국대학신문, 2021).

서울특별시의회(2014)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임차인으로 거주 중 청년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임차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대부분(94.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3%의 매우 낮은 비율만이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청년 스스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홀로 생활하는 청년 임차가구도 부모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한다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9.4%로 나타나 서울시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해 준다는 응답이 8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상당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상근 근로자의 29.8%와 임시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도 35.0%도 부모가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취업여부, 근로 형태의 유형과 무관하게 서울시 청년의 주거비의 부모 의존도가 높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현재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썬거루족의 비율이 높으며, 코로나19 이후로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상황과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_청년 리터루족

본 연구의 주제인 청년 리터루족은 현재 한국사회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하는 썬거루족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국내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를 비롯한 썬거루족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주거 독립을 하지 못한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입장을 가족학이나 가계재무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박주영과 유소이(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55~70세 부모를 대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은퇴준비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은퇴준비 정도에 따라 가족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은퇴준비와 관련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5.0%가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독립시켜 부모 세대만 사는 가구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함께 동거하는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은퇴준비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안정신과 최명애(2019)는 직업을 갖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중년 여성 중 20~44세 사이의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 293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와 동거하며 경험하는 양가감정에 관해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 미혼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동거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독립 또는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절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인혜와 여정성(2020)의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썬거루족 부모와 자녀를 독립시킨 비썬거루족 부모의 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의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썬거루족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는지 여부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안녕감이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썬거루족 자녀의 여부가 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썬거루족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일부 부모가 아닌 성인자녀의 관점에서 썬거루족 연구를 수행한 연구도 있었다. 반수진(2019)은 성인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썬거루족 청년과 부모의 동거 상황을 조사 및 연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도시와 도농복합도시에서 거주하는 30대와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미혼 독신자들의 생활양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중상류층 가정의 고학력 청년은 썬거루족의 비율(부모의 존 동거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중 여성의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는 현대사회 들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지만, 미혼청년이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강현선(2018)은 취업경험이 없는 성인기 자녀의 부모의존 동거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오랜 기간 썬거루족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동거해 온 30대 후반~40대 중반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존 동거와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들이 경제력 없어 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표면적인 부모의존 동거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와 분화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한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미확립과 분리개별화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심리 내적 요인들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김혜지(2021)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주목하며 이들 관계의 특성과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동거의 이유는 정서적 측면의 안정감과 서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으며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 동거상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비혼 자녀와 부모가 동거를 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리터루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 리터루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부메랑키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와 관련한 연구로는 Tosi(2020)의 연구가 있다. 영국의 부메랑 키드(리터루족)로 인한 부모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단적으로 분석한 Tosi(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자녀와의 재동거 초기에 우울감이 높아짐을 확인하며 성인자녀와 부모의 재동거 상황이 부모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초기 이후 상승하여 자녀와의 재동거 상황에 적응하여 가족의 거주 형태 변화에 적응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Copp과 동료들(2017)의 부메랑 키드인 성인자녀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경험 이후 다시 부모와 재동거하는 부메랑 키드 비혼 성인자녀는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한 비혼 성인자녀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독립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성인자녀들이 부모와의 동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지속됨을 분석하였다. 비혼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일상경험을 분석한 Fingerman과 동료들(2017)의 연구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비동거 성인자녀보다 부모와 정서적, 물리적으로 서로 지원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와 함께 스트레스와 갈등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 역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켄거루족 역시 부모와의 동거상황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errington과 Falkingham(2014)은 청년들이 부메랑 키드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학 졸업 이후 구직의 어려움과 실업, 이혼 등이 영향이 청년들이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켄거루족인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가 성인자녀와 부모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심리적 영향이 다소 비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리터루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전무하였으며 청년과 부모의 동거에 관한 켄거루족과 관련한 연구도 주로 부모의 관점에 치중되어 있어 리터루족 당사자인 독립경험 이후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켄거루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로 신사회 위험이 증가하며 실직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물가, 주거비 및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켄거루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현시점에서 리터루족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들의 독립생활 경험과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원인, 독립경험 이후 리터루족으로 사는 청년의 삶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03. 연구 결과

1_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이는 총 7명으로 여성이 5명, 남성이 2명이었으며, 29세부터 37세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의 직장 또는 학교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은 회사원 2명, 공무원 1명, 자영업 1명, 대학원 재학 1명, 아르바이트 1명, 무직 1명으로 다양하였다. 현재 상태는 다양하였으나 모든 이가 대학 졸업 이후에 일 경험이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독립생활을 하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리터루족에 해당하였다. 2번 이상의 리터루족 경험이 있는 자는 1명이었다. 이들의 독립기간은 약 1년부터 6년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 32.57개월(SD=20.996)이었으며, 리터루족 기간은 평균 13.43개월(SD=8.87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자 복잡다단한 이유로 리터루족이 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 이유(퇴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가족보호 등)로 리터루족이 되는 생활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 거주 중인 상태로, 주거 소재지는 서울이 5명, 경인지역이 2명이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인 경우는 3명, 부모님과 형제와 동거 중인 경우는 2명, 어머니와 형제와 동거 중인 경우는 2명이었다. 이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낮다(상/중/하 중 중간 미만)고 인지하는 경우는 3명이었고, 4명은 중간(상/중/하 중 중간)이라고 인식하였다.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높다(상/중/하 중 상)고 생각하는 경우는 2명이었으며, 중간(상/중/하 중 중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2명, 낮다(상/중/하 중 중간 미만)고 여기는 경우는 3명이었다.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년지원 정책을 경험하였다.

[표 3-1]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직업	주거 상황	독립기간	리터루족 기간
1	여자	32	회사원	가족동거 (어머니, 오빠)	3년	2년
2	여자	37	회사원	가족동거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1년	8개월
3	여자	33	공무원	가족동거 (부모님)	1년	2.5년
4	여자	29	자영업	가족동거 (부모님, 여동생)	3년	1년
5	남자	31	대학원생	가족동거 (부모님)	6년	1년
6	남자	30	아르바이트 (창업준비)	가족동거 (부모님, 남동생)	1년	6개월
7	여자	35	무직	가족동거 (부모님)	4년	3개월

2_분석 결과

본 연구는 리터루족이 특성과 의미가 어떠한지를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인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상황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여 사례별 특성을 면밀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한 경험에서 드러나는 리터루족의 삶의 구성요소를 찾아 범주들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와 하위주제를 발견하여 그 심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사례 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시 부모집으로 돌아온 캥거루 청년이 독립과 부모와의 재동거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인식하고 체험하는 리터루족의 삶의 특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 참여자 개별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는 개별 연구 참여자의 독립 경험을 비롯하여,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사회·경제적 상황, 리터루족으로 사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일반적 상황이 어떠한지가 담겨있다. 이때 주

로 앞 사례와 다음 사례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년 개인별로 리터루족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인식을 서술하였다.

(1) 사례자 1

사례자 1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32세 여성이다. 현재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으며 리터루족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다. 사례자 1은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며 대학생 시절부터 자취를 해온 경험이 있어서 독립생활과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한 편이다. 학생시절에는 자취를 위한 보증금과 학비를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돈을 모아 대학을 졸업 이후로는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사례자 1은 중학교 재학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친척으로부터 학비보조와 교회에서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마련하여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꿈꿨다.

대학에서 방송·영상 계열을 졸업하고 취업한 첫 번째 직장은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근무하기도 하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여 좋아하고 어릴 적 선망하던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기쁨에 지치는 줄 모르고 일 중심으로 살았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장 근처에서 방을 구해서 살았으나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이었다. 저녁도 주말도 없이 일만 하면서 살다가 살도 찌고 건강도 나빠졌다. 늘 긴장 상태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송·영상계열 업무에 염증을 느끼게 되면서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던 어느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전직을 계획하게 되었다. 사례자 1의 새로운 꿈은 스투어디스였다. 공인된 외국어 자격증이 있어서 어학에는 자신이 있으며 자유롭게 여행 다니며 일하고 싶어서 스투어디스가 되고 싶었다. 가정에서 생활비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전직을 꿈꾸면서도 돈벌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직장을 계속 다녔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피곤한 날이 반복되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준비하여 운이 좋게 외국 항공사의 지상직 업무에 최종 합격하였다. 원하던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 업무는 아니었지만 사례자 1은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3년을 다닌 직장에 사표를 썼다. 그러나 취업 이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바로 근무하지 못하고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다. 과거

에 경험해 본 유행성 전염병 사례를 통해 크게 확산되지 않고 금방 치료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유행을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정지되었다.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대기발령 상태가 6개월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지만 생활비와 서울의 높은 월세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럽고 직장근무 시작 일정이 불투명하게 느껴지면서 20살 이후로 떠나온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사례자 1은 이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대기발령을 지속하던 외국 항공사는 사례자 1을 포함한 채용자 전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10년이 넘게 떠나왔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며 사례자 1은 주거비 마련의 고민이 해결되면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사는 생활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의 독립생활로 자신만의 생활습관을 갖춘 사례자 1에게 어머니의 관심은 간섭으로 여겨졌고 작지만 혼자 살던 공간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생활영역을 나누어 사는 생활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귀가 시간을 감시하기 시작하며 잔소리가 늘었고, 사소한 다툼이 지속되었다. 어머니는 계속 함께 살던 오빠와 사례자 1에게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빠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도 괜찮았으나, 독립하여 혼자 생활을 꾸려온 사례자 1은 어머니와 함께 가사 노동을 분담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와 생활방식에 불만이 생겼고 오빠와도 함께 생활하며 역할분담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언제나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집은 사례자 1에게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무언의 규칙이 생긴 것 같았다고 인식하였다.

사례자 1은 리터루족으로 살아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초기의 갈등상황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하면서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가족과의 갈등과 같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사례자 1에게 리터루족으로 사는 삶은 제대로 독립하기 위한 잠깐의 후퇴라고 여겨진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은 아니며, 현재도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다시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할 계획이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기 위해 LH 행복주택에도 지원해 보기도 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리터루족이 된

사례자 1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활비를 부담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월세 지출을 아끼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해소된 것을 생각하며 공과금 납부라도 지 필요한 가전 구입 등 비정기적으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크고 작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자 1은 리터루족이 되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오랜만에 함께 살게 된 어머니가 비대면 서비스라던지 은행업무 등 생활 속 변화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감과 책임감이라는 양가감정을 가졌다. 사례자 1은 어머니가 아기가 된 것 같았다고 표현하였는데, 사례자 1이 대학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던 10년 사이 나이 드신 어머니의 상황을 인지하며 늘 사례자 1의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사례자 1과 오빠의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고 느꼈다.

사례자 1은 리터루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이 청년들에게 잘 홍보되고 잘 전달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례자 1은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LH 행복주택에도 지원해 보고, 내일채움공제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경험해 보았는데 관련한 정보는 거의 직장 동료나 친구를 통해 공유하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할 때 관련한 정책의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순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은 편이지만 현재의 청년지원 정책은 예산에 따라 정책 지원 대상이 변경되는 등 변화도 빠르고 지원내용도 복잡하여 늘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용어가 어렵고 기준이 복잡하여 늘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점이 불만이다. 그래서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을 받아 본 경험도 있으나, 연결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화상담은 SNS의 게시글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상담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사례자 1은 최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미 마련된 정책들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텍스트 상담과 같이 상담방식이 다양화 되거나 한 번의 상담으로 주거, 자산형성, 취업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자 1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을 통해 충족하려고 애쓰며, 직접 부딪쳐서 경험하면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는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변에 공유하고 좋은 것은 더 잘 누리기 위해 경험해

본 청년지원 정책의 시행착오를 블로그에 작성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2) 사례자 2

사례자 2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10년 차 직장인으로 37세 여성이다. 독립기간은 1년으로 서울의 높은 보증금이 부담이 되어 경기도에 전세를 구하고 독립생활을 시작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활물가가 부담이 되어 2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위약금을 내고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에서 여동생,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리터루족 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되었다.

독립하게 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다소 감정적으로 결정하였다. 개인적인 이유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자주 싸우게 되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인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과 기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싫어서 1주일 만에 집을 구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 최대한 직장과 가까우면서 모아둔 돈에 맞추어서 집을 빠르게 구했지만, 독립생활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다.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계약하는 방법,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정보를 검색하여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겁이 나고 어려웠다. 그렇게 시작한 독립생활은 어려움이 많았다. 사례자 2는 오랜 직장생활로 사회생활에 대한 지혜와 정보는 다양했으나 독립생활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는 무지하였다. 막연한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독립생활의 현실은 살림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은 버거울 때가 있었다. 스스로 자립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닥치니까 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학교나 공식적으로 받은 경험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돌아온 혼자만의 공간은 자유롭지만, 적막하여 외로움이 커지기도 하였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두려움도 경험하였다. 야근으로 늦은 밤에 퇴근하는 길에는 밤길이 무섭기도 하였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무서워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할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가족과는 자주 연락하였지만 걱정할까봐 생활 속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사례자 2는 독립생활을 회상하며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 쉬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2년 후에는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 텐데 보증금을 대출받으며 발생하는 이자와 생활비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자 위약금 및 이사 비용 등 일시적인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어머니께 다시 손을 내밀었다. 처음 독립할 때부터 사례자 2를 말리며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흔쾌히 돌아오라고 하셨다. 가족과 다시 함께 살게 된 초반에는 어머니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사례자 2는 돈 때문에 리터루족이 되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리터루족으로 사는 삶은 버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례자 2는 이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서울에 계속 살고 싶는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니 돈을 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독립생활은 사례자 2에게 생고생으로 여겨졌지만, 어려움만 경험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가족과 더욱 애뜻해지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의 노고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앞으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어머니의 노년에 도움을 드리기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시키지도 않은 집안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 공과금 정도는 부담하여 내게 되었다. 계속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사례자 2의 옛 모습같이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 동생들을 집안일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한다. 사례자 2는 독립생활 경험 이후 리터루족이 되면서 경제관념이나 돈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동안은 막연히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 서울 집값을 알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는 못했는데 집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서울의 살인적인 집값을 경험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을 시작하고 종료하면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전보다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돈을 모으고 있다.

사례자 2는 독립생활을 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과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들을 많이 검색하였다. 뉴스레터를 신청하기도 하고 정보 검색에 적극적이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다고 느껴졌다. 중앙에서 공지된 사업이 지역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등 정책 하나를 찾아보려면 개별 홈페이지를 따로 찾아보아야 했는데 직장을 다니고 일하느라 바쁜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정보 접근방법이 쉽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점차 주변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인이 경험하였거나 추천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마저도 34살 이상은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확인하며 점차 자신은 청년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연령 기준에는 포함되었지만, 직장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령하는 많지 않은 월급 때문에 소득 기준에서 탈락을 하기도 하며 청년지원 정책에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다. 사례자 2는 청년지원 정책별로 청년을 지칭하는 연령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아직 청년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청년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례자 2와 같은 청년도 정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을 지칭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여겼다.

사례자 2는 리터루족이 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경험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감당하며 잘도 사는데 자신은 돈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다. 다시 독립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을 몸만 크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독립경험을 통해 조금 더 자라서 현재는 좀 더 어른이 될 준비가 되었을 뿐 여전히 아이같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리터루족 생활은 진짜 독립을 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사례자 2는 한부모가정이며 형제와 함께 사는 현재의 거주 상황 등 앞의 사례자 1과 유사한 가족 배경을 갖고 있었다. 사례자 1과 2는 모두 리터루족이 되어 다시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미래의 독립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례자 1과 2는 청년지원 정책에 관심이 높았던 점도 흡사한데, 이들은 현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는 최근 주거 및 생활, 자산 형성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사례자 3

사례자 3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33세 여성이다. 독립기간은 1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시험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을 활용하여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 근처에서 자취를 하였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과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중/하 중 중이라고 여겼는데, 독립을 준비하며 부모님

께서 월세 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으나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사양하였다. 대신 독립생활이 처음이었던 만큼 집을 구하고 부동산을 계약하는 등 준비과정을 아버지와 동행하며 도움을 받으며 자취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닐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시험준비를 하였으나 퇴사 이후 학원과 자취방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입할 수 있었다. 20대 때는 막연한 독립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혼자 살게 된다면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시험준비의 입장으로 시작한 독립생활은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통해 의, 식, 주만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시험에 언제 합격할지 미래가 불확실한 수험생활을 시작하며 관련해서 학원비, 주거비, 생활비 등 일체의 비용을 혼자 감당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취를 하게 되며 교통비를 아끼게 된 상황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수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식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만 먹거나, 비싼 과일은 먹지도 못하는 등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챙기거나 심리적 욕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가진 돈의 한도에 맞추어 생활을 하고 시험준비를 위해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는 건조한 생활을 지속하였다. 독립의 목적이 시험준비에 집중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독립의 기간도 시험준비와 연결되었다. 1차 필기시험 합격발표 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원을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자취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며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실기시험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재 약 2년 6개월 정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리터루족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례자 3은 리터루족으로 살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생활 속에서 받고 있어서 스스로를 살필 여유도 생기고 리터루족 생활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자에게 부모님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체계로 여겨졌다. 사례자 3은 사례자 2와 유사하게 리터루족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는데, 현재 3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도 있고,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는 일상이 반복되며 혼자서 생활을 꾸리기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거나 식사를 챙겨주시고, 빨래와 같은 살림을 담당해 주시는 것에 안정감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리터루족이 되면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좋은 일이 계속되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졌다. 현재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결혼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사례자 3에게 리터루족으로 사는 삶은 독립을 연습한 이후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사례자 3은 수험생활을 할 때는 관련한 비용은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였으나, 부모님 집에 와서 살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후에 결혼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의 일부를 목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면서 생활비만 드릴 뿐 수험생활 이전보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강해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대안은 없다고 인식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례자 3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인 중소기업 재직 시절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모은 돈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그래서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도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류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였다고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한편, 사례자 3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청년지원 정책도 있다면서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이 존재함에 속상해하였지만, 공무원 집단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였다. 사례자 3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직원, 수험생, 공무원의 3가지 직군과 상황을 경험하였는데, 청년들의 삶이 자신의 경험처럼 다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정책이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의 좋은 정책들이 보다 잘 활용되어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고, 리터루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이 현실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많은 청년이 좋은 정책을 누리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정에 있어서 제출방식이 단순화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4) 사례자 4

사례자 4는 29세 여성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무인카페 사장님,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3가지 명함을 가진 N잡러¹⁾이다. IT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무인카페는 이제 시작한지 10달 정도 되었고, 블로그는 이제 시작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독립생활을 하게된 이유로는 직장이 부모님의 집과 멀어서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구의 룸메이트가 되어 친구의 집에 함께 살았고, 회사 근처의 월세 보증금을 모아서 이후에는 혼자서 집을 구하여 독립생활을 하였다. 자취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친구의 룸메이트로 살면서 친구에게 혼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활기술을 배우고, 집을 구할 때도 친구의 도움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사례자 4는 독립경험을 자유라고 표현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독립생활이 쉽지는 않았다.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월세를 늦게 내기도 하는 등 실수 연발이었지만 지금 회상해 보니 생활지능이 없다고 생각되면서도 다 추억으로 여겨졌다. 매일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며 어른이 된 기분을 경험하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 독립했던 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무인카페를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성장시켰다고 여겼다. 이는 독립생활을 어려움으로 기억하는 사례자 2, 3의 사례와 구분된다. 사례자 2, 3 역시 독립생활을 통해 배운 점도 있지만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 반면, 사례자 4는 어려움은 있었으나 배운 점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다.

사례자 4는 3년을 다닌 직장을 퇴사하며 더 이상 직장 근처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리터루족이 되었고 현재 1년 정도 리터루족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을 퇴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지속하려는 생각도 하였으나 무인카페 사업을 준비하며 퇴직금을 비롯한 모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에 주거비를 아끼려는 생각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혼자 살다가 가족과 함께 다시 못 산다며 리터루족으로 살겠다는 사례자 4의 선택을 말렸지만,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일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례자 4는 아버

1) N잡러란 여러 개의 일(직업)을 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2개 이상(N)의 일(job)을 하는 사람(er)이 되는 것이다. 최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생각되었다. 자취하면서 주말에 놀러가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간 부모님의 집은 독립생활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듯한 기분을 경험하였다. 사례자 4와는 상의도 없이 방은 이미 창고처럼 쓰이고 있어서 사례자 4가 없는 삶에 부모님과 동생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졌다. 자신의 방에 보관되고 있는 짐이 불편하였지만, 가족의 눈치가 보여서 치위달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속상했다.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집에 얹혀사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업무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프리랜서가 되면서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니,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다시 독립해서 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다. 독립적으로 생활해 보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 사이에도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살 때는 엉망으로 살아도 부듯함이 있었는데,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니 몸은 편한데 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사례자 4는 사례자 2과 유사하게 부모님 집에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님 집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다시 독립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등 미래에 대한 걱정과 심리적 위축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사례자 2는 리터루족 전후로 같은 직장을 다니며 리터루족 생활 초기에 경험한 가족과의 갈등 외에는 큰 환경변화가 없었으며 현재는 갈등 상황이 줄어들어 리터루족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사례자 4는 직장을 다니던 상황에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가족 이외에 환경에 변화가 있는 데다가 가족과의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다시 가족을 벗어날 계획을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가족 이외의 환경 변화가 리터루족과 그들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두드러진다. 사례자 4는 리터루족이 된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사는 생활에 끼어든 듯한 묘한 감정을 경험하며 이제는 편히 설 수 있는 집도 없다는 생각이 들며 때로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례자 4는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정기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가족과 잘 지내다가도 싸우곤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사례자 4에게 리터루족으로 사는 삶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자식 2회차의 생활로 여겨져 독립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독립을 하기 전에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자 4는

독립생활과 마찬가지로 리터루족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다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사례자 4는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에 지원하려고 준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가 있는 카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요새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줄 곳은 없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다양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는 믿을 곳은 역시 부모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례자 4는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과 갈등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는데, 어머니와 갈등 상황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하고 조정하기보다는 그저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했던 것이 아쉽게 여겨졌다. 다시 독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와 불편한 감정을 공유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생활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리터루족을 포함한 청년들이 현실적인 독립계획을 세우기 위해 돈 관리를 비롯한 생활관리, 가족과의 갈등관리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자 4는 평생직장도 없고, 낮은 월급과 어려운 취업 등 요즘 청년들의 삶이 불쌍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청년들의 고단함을 보듬을 수 있기 위해 생겨나는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들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였다. 정책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다양한 이유로 정책이 쉽게 없어지거나,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책의 변화가 잦은 현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사례자 5

사례자 5는 31세 남성으로 21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6년간 독립생활을 유지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 중 가장 긴 독립기간을 체험하였는데, 현재는 아버지의 건강문제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여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버지의 건강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리터루족이 되었다.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서도 가족의 보호자로 역할을 하게 된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며 양가감정을 가졌다.

사례자 5는 처음 독립을 했던 21살을 회상하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혼자 힘으로 이뤄낸 독립생활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흡수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도록 애쓰며 차근차근 인생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왔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공모전 등 사회적 지원 및 교내의 지원은 모조리 찾아서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살을 유지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밥벌이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늘 피곤한 날이 반복되었지만, 흡수저에서 벗어나서 동수저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갖고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꿈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을 경험하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일구어 가야 하는 삶이 버거웠지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버텼다.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스스로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허탈감에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다. 흡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자꾸 가족들에게 화를 내서 사례자 5가 퇴근하면 가족들이 눈치를 보면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한 6개월의 방황 기간을 거쳐 지금은 마음을 추스른 상태라고 사례자 5는 설명하였다. 현재는 자신의 가정형편에 불만을 갖는 생각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느껴서 아버지의 질환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편감이나 분노는 내려놓은 상태이다. 사례자 1, 2, 3, 4는 리터루족 생활에 불편감과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신체가 건강해짐을 경험하는 등 사소한 것일지라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에 반해 사례자 5는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군대에서 보낸 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가족을 떠나와서 혼자만의 생활방식으로 살았는데, 가족과 함께 부대끼고 사는 생활이 답답했고 어머니의 관심은 참견으로 여겨져 귀찮았다. 가장 싫었던 점은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면서 노력해 봐야 내 가정이 위치한 흡수저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싶은 나약한 본성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무기력에 빠진 것이었다.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자 5를 다시 일으킨 것은 자신이 앞가림해야만 버틸 수 있는 현실 때문

이었다. 당장의 카드값과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사례자 5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 다시 마음과 자립심을 회복하며 다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사례자 5는 원래도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리터루족이 되면서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을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는 창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직장을 다닐 때는 현실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을 통해 돈을 모으고 버티려고 노력했었다. 사례자 5는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연말정산 감면 제도 등 많은 청년지원 정책을 경험하였는데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은수저 중산층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적금납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 사례자 5는 리터루족을 예방하고 청년들의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이나 갑자기 수술을 받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긴급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흙수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을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사례자 5는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아버지의 수술비를 비롯하여, 가정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가족보호 청년의 모습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지지체계라고 여기지 않으며 인생을 오뎅이처럼 버티면서도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6) 사례자 6

사례자 6은 30세 남성으로 올해 3월 직장을 퇴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며 독립생활을 중단하였다. 직장에 취업하며 직장 근처에서 1년 정도 독립생활을 경험하였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독립생활도 종료하였는데, 경제적 이유보다는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리

터루족을 선택하였다. 현재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리터루족 생활에 만족하며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그럼에도 사례자 6은 직장생활과 독립생활을 모두 정리하며 다시 학업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이제는 은퇴하신 부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철없는 자식'이 된 기분을 경험하며 위축감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 노후를 즐기셔야 하는 시기에 부담을 드린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염치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자진해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다시 학생이 되었지만, 대학원에서 장학금 및 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서 주거 이외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자 6은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이며, 본인은 중이라고 여겼는데,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다. 한두 가지 제도에 관심을 가져본 경험이 있었으나 소득을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자신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직장생활이 바빠서 관련한 정보를 찾는 것도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원을 찾기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을 시작할 때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원룸을 구했으며 일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독립생활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고 경제적 독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결정권이 생겼다고 여겼다. 그래서 때로는 집과 회사만 오가는 생활이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님의 집보다는 아늑함이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는 원룸 생활이었지만 독립생활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점차 직장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사례자 6은 리터루족이 되면서 자신이 1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경제적, 물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을 뿐 여전히 부모님께 받는 것에 익숙하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사례자 6은 사례자 2, 4와 흡사하게 부모님 집에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이유를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겼다. 사례자 6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최근 자녀를 출산한 형이 있었는데 최근 형이 부모님께 양육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형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성

인이 되고 취업하여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께 달려오는 자기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례자 6은 경제적인 독립은 어렵지 않지만, 정서적 독립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독립은 참 복잡한 개념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례자 6은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진짜 독립이 하고 싶어졌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독립은 사례자 6이 경험한 경제적, 물리적 독립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형과는 달리 부모님께 육아지원도 받지 않고, 결혼할 때도 결혼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 완전한 독립이라고 여겨졌다.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의 의견에 경영에 반영해야 하듯이 부모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원조를 받는 독립은 온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사례자 6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잘 영위하고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독립생활의 첫 단추인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에 1인가구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이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더욱 확대가 된다면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리터루족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다.

사례자 6은 사례자 5처럼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례 5와는 달리 부모를 가장 중요한 지지체라고 여기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인생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유지하고 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부모님께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7) 사례자 7

사례자 7은 35세 여성으로 최근 직장을 퇴사하며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리터루족이 되었다. 사례자 7은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2번의 리터루족 생활 경험이 있는데, 직장을 입사할 때마다 독립생활을 시작하였고 직장을 퇴사할 때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가장 최근 독립기간은 약 4년이며, 리터루족이 된 지 3개월째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어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것도 리터루족 생활로 돌아오게 된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다. 혼자 자취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원래도 혼자 살면서 늦게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해와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집에서 혼술(혼자 먹는 술)하는 횟수가 증가

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사례자 7은 혼자 생활하는 삶을 자유롭고 편하게 여기지만 스스로 생활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으며,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같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사례자 7의 건강상태와 생활관리의 어려움을 걱정한 어머니가 퇴사 이후에는 부모님 집에 와서 생활할 것을 제안하여 독립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리터루족이 되었다. 사례자 7은 어머니가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는 큰 불만이 없이 잘 지내는 편이다.

사례자 7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독립도 일도 잠시 쉬는 중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례자 7은 리터루족으로 살기 이전까지는 연령별 인생과업과 삶에서는 어떤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했다. 업무강도가 높은 직장이라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보증금과 집을 구하는 과정 등 자취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부모님이 도맡아 하였고 쉬는 날에는 어머니가 오셔서 집을 관리하시고 반찬을 해주셨다. 그래도 혼자 산다는 생각에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번듯해 보였던 직장은 개인 생활이 없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길어서 사례자 7에게는 버틸 수 없이 힘든 곳이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적인 관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코딩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졌다. 그래서 고민 끝에 4년을 다닌 직장에서 퇴사를 결심하고 국내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청년 IT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현재는 프로그래머와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 유사한 사회적 지원이 많은 편이지만 사례자 7이 전직을 준비할 때에는 사회적 지원이 많지 않던 시기라서 어렵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월 100만 원의 교육비도 지원받았지만, 전공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져 그 돈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월세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딸을 못마땅해하셔서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다시 취업에 성공하며 사례자 7은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근무 형태가 유연한 직장 이었고 재택근무가 많은 편이라 첫 번째 직장처럼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30살이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막연

한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도 지속되어 모아둔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도 스스로 마련하였고 자취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집도 선택하여 다시 독립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전직에도 성공을 하고 다시 독립하였지만, 첫 번째 직장과는 또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현재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례자 7은 독립과 리터루족 생활을 거듭하면서 평생직장은 없으며 직장을 잠깐 쉴 수 있듯이 독립생활도 잠시 쉴 수도 있고 30살이 넘더라도 필요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인생에는 정답과 정해진 때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그 생각이 변화하였다. 사례자 7에게 리터루족으로 사는 삶은 자립생활의 선택과 삶의 반복 중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례자 6의 생각과 유사했는데, 사례자 7은 사례자 6처럼 부모를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여기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리터루족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온 집은 편안하지 않고 갈등이 많은 상태이다. 아버지는 이미 사례자 7이 오래전에 퇴사한 첫 번째 직장에 여전한 미련을 보이며 그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현재 사례자 7이 하는 일에 불만을 표현하셨다. 그러면서 직장과 진로, 결혼 등 다양한 이슈로 아버지와 사사건건 부딪치며 이러다가 아버지와 의절할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사례자 7은 가족 간에도 심리적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 모두 서로에게 독립을 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심리적 거리감 유지를 통해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여겼다. 사례자 7은 리터루족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가 현재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례 간 분석

본 연구에서 사례 내 분석 이후 원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간 분석은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먼저 수집된 자료의 전체 내용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특징, 주요 현상을 설명하는 의미 단위 등을 코드화하였다. 다음으로 생성된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 하위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후 각 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주제

를 명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코딩 과정의 객관성 및 명확성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학 석사 전공 연구 보조원과 함께 토의와 합의를 거쳤으며 이와 더불어 자료 분석에 대해 논의와 검토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3-2] 주제

주제	하위주제
독립생활의 단맛, 그리고 쓴맛	독립이 주는 달콤함
	만만치 않은 현실
	다양한 정책, 그러나 내 것은 없는 현실
다시 돌아온 부모님 집의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	부모의존 동거의 양가감정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관계
온전한 독립을 위한 허들 넘기	현실자각의 시작
	독립에 대한 재성찰
독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중요한 교육과 상담
	쉽고 빠른, 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정보제공
	지원 기준 문턱 높이의 다양화

(1) 독립생활의 단맛, 그리고 쓴맛

사례자들은 처음 독립한 후의 생활은 자취생활에 대한 로망 실현의 기쁨과 직장과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절약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점차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의 부담, 적은 월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어려움으로 느끼게 되었다.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았을 때, 옛날과 비교하여 최근에는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많았으나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3가지 하위 주제(독립이 주는 달콤함, 만만치 않은 현실, 다양한 정책, 그러나 내 것은 없는 현실)로 살펴볼 수 있겠다.

① 독립이 주는 달콤함

사례자들은 처음 독립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주로 직장 and 집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과 혼자 집을 잘 꾸며서 자유를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고픈 로망 실현의 마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생활 초년생의 경우 잦은 야근과 많은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취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꿀맛 같은 통로가 되었고 교통비의 절약은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간섭 없이 혼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는 자유로움은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과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에서 편안함과 해방감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게 독립은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 독립했을 때 너무 혼자 살고 싶었어요. 빨리 나가보고 싶어서 일단 기대감만 컸던 것 같아요. 빨리 혼자 살고 싶었어요.” (사례자 1)

“사실 저희 집이 좀 엄청 보수적이고 되게 통제를 많이 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유 이런 느낌.” (사례자 3)

“회사가 판교여서 집이랑 엄청 멀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살다가 독립했어요. 혼자 살게 되니까 너무 좋았죠. 혼자 사는 거 로망이 있었어요.” (사례자 4)

“출퇴근 시간 아끼려고 회사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혼자 사는 거라 좀 기대되기도 했어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제 공간이 생긴다는 게 기뻐요.” (사례자 6)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야근도 많고 일이 힘들 때라 출퇴근 시간 아끼려고 처음 자취해서 살았어요. 출퇴근 시간 아껴서 잠 더 잤어요.” (사례자 7)

② 만만치 않은 현실

사례자들은 독립생활이 점차 진행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서툰 집안일로 인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직장 때문에 독립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실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오르지 않는 급여에 비해 계속 높아지는 물가와 주거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까지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이때 구체적인 살림 방법에 대해 따로 배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서툴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경제관념이나 주거 마련의 경험(전세, 월세 거주)이

부족하여 월급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발생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 취업기회의 제한 등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취를 하니까 돈이 절대 안 모이는 거예요. 자취를 계속해서 돈은 계속 쓰는 데 보증금도 늘어나고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돈을 모은 것도 쉽지가 않고...”
(사례자 1)

“아는 것도 없는데 (독립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고 신경 쓸게 많아 지고, 전기세도 예를 들어 엄마집에 있을 때는 ‘많이 불 켜지 마’라고 잔소리 들었는데 독립해서는 내 마음대로 전깃불 켤 수 있지만 대신 돈도 내가 내야 하는 거죠.” (사례자 1)

“제가 1년 정도 혼자 살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돈 때문이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올라서 자취하고 살다가는 돈을 전혀 못 모으겠더라고요.” (사례자 2)

“(독립생활이) 어려웠어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나뉘서 할 사람이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사례자 4)

“자취생활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했지만, 고생을 사서 하는 기분? 혼자서 집안일 다 해야 하는 거 힘들었어요.”
(사례자 5)

③ 다양한 정책, 그러나 내 것은 없는 현실

사례자들은 독립 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정책을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이전에 비해 다양한 청년 주거 및 소득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알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높은 경쟁률, 까다로운 지원 기준 등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고, 대다수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청년을 위한 소득 및 주거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받기 위한 기준으로 나이, 소득, 재산, 저축 기간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대다수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만 유리하거나,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낮은 연봉을 받는 조건의 청년 등만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즉, 요즘 청년의 상황(고용 불안정, 높은 계약직 근로 형태, 늦은 대학 졸업으로 인해 취업자의 높은 연령 등)에 대한 반영이 다소 부족한 정책의 아쉬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는 행복주택 떨어졌어요. 됐어도 엄청 고민은 했어야 했어요. 2년 후 재계약 때 재심사하는데 제가 연봉이 오르는데 재심사에서 소득이 오르면 할증이 붙는대요. 이자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니까 힘들게 행복주택 들어간 의의 없어져요. 행복주택 대신 오래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행복주택이에요.” (사례자 1)

“제가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청년주택으로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는데 제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입이 아니라 경력이다 보니 소득이 되게 애매하게 걸렸어요.” (사례자 2)

“청년들 창업하면 대출지원 해주는 게 있어요. 알아봤는데 저는 카페여서 안 되더라구요. 1억까지 돼서 준비해보려다가 안 된대서 짜증났죠.” (사례자 4)

“청년들 지원해 줘서 목돈마련 하는 저축 상품 많은데 제한이 많아요. 연봉도 보고 나이도 보고, 서류도 많이 내라고 하고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해당이 안되서 안 해요.” (사례자 7)

(2) 다시 돌아온 부모님 집의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

사례자들은 다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독립한 후 다시 부모님과 동거하게 되었을 때 뭔가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지고 생활비 일부를 내야 하거나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과 달리 부모님도 사례자들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개의 하위 주제(부모의존 동거의 양가감정,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관계)를 확인하였다.

① 부모의존 동거의 양가감정

사례자들은 다시 부모님과 동거하게 되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긍정적 변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독립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경우 더 높아진 부모님의 간섭 수준, 제한되는 자유, 집안일에 대한 공동부담의 압박 등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이 된 청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경우와는 달리 한 번 독립을 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된 경우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즉, 독립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부모님의 간섭과 통제가 더 심해지고, '이젠 너도 집안일을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담감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집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돈이 모이고 급할 때 엄마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들어오니 생각보다 너무 엄마 간섭이 심한 거예요. 독립했을 때는 아무도 나한테 터치 안 해서 편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계속 저를 걱정하니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엄청 싸웠어요." (사례자 1)

"다시 집에 짐을 싸 들고 들어와서 살게 되니 처음엔 엄마랑 좀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서로 막 신경 거슬리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계속 같이 살았던 부모님인데 왜 힘들까요? 도움 받고 익숙한 집으로 온 건데요. 생각보다 너무 갈등도 많고 괜히 눈치도 좀 보게 돼요.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었고 매일 집안일 다 안 해도 되니 편하긴 확실히 편하죠." (사례자 2)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는 힘든 줄 몰랐고 그냥 주말에 집에 밥 먹으로 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에 같이 살 때랑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편하게 쉬려고 하면 눈치가 보였어요. 엄청 짜증나도 제가 참아야 해요. 엄마랑 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한 거 땀에 이렇게 계속 여기 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도 돼요. 부모님이랑 잔소리 때문에 자주 싸우게 돼요." (사례자 4)

②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관계

사례자들은 리타루족으로 생활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면서 부모님이 자식인 사례자들에게 갖게 되는 기대감과 사례자들이 자식으로써 부모에게 갖게 되는 기대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 연로해지는 부모님이 젊은 자식에게 기대는 도움의 발생, 다시 돌아온 부모님 집에서의 생활비 일부라도 내야 하겠다는 다짐 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이 이제 성인이 되고 독립도 했던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온전한 성인으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결혼도 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와 아직은 세상살이가 힘들어 다시 돌아온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이전처럼 부모님의 자식으로써 지금 좀 힘든 상태이니 부모의 그늘 아래서 쉬고 회복을 얻고 싶은 마음)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더불어 연로해지는 부모의 입장에서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세상에 서툰 부모를 젊은 자녀가 옆에서 잘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과 기대감이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누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독립 후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니 '이젠 나도 생활비 일부인 공과금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담감을 스스로 갖게 되어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엄마에게 도움받게 된 건 좋아요. 털 외로운 것도 좋고. 그런데 엄마랑 제가 생각이 달라요. 기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엄마는 내가 다시 집에 들어와 살면 밥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이제는 같이 사는 오빠도 저도 집안일 알아서 나눠서 해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낼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냥 엄마한테 이저 해줘, 저저 해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 아끼려고 엄마집 온 건데...그래서 매달 생활비는 드리지 않고 공과금을 내거나 물건을 살 때 제가 결제해요.”

(사례자 1)

“이제는 부모님이 키오스크 이런 거 진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뭔가 앱을 사용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고...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드시는데 그런 걸 좀 도와줘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시간 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하고 그냥 저한테 해달라고 해요. 엄마가 어리광이 늘었어요. 얘기 같아요.” (사례자 1)

“다시 가족들이랑 살게 돼서 만족해요. 독립생활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랑 싸우게 되고 이상하게 더 간섭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뭔가 이제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면서 엄마의 노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게 돼요. 지금 생활비 일부는 내고 있어요.” (사례자 2)

“아직은 부모님 도움을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 노후도 걱정되고 어머니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도 은퇴하셔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계신 경이 쓰이신 거 같아요. 만약 계속 집에서 생활했으면 집이 당연하니까 돈을 벌어도 생활비 드릴 생각 안 했을 거 같아요.” (사례자 6)

(3) 온전한 독립을 위한 허들 넘기

사례자들은 준비가 되면 언젠가 다시 재독립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독립할 때는 이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길 원하였다. 재독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통한 재정 마련, 주거 마련에 필요한 청년지원 정책의 철저한 탐색 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도 정서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관련하여 ‘현실자각의 시작’, ‘독립에 대한 재성찰’이라는 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현실자각의 시작

사례자들은 본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독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실천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지원 정책 탐색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세금이나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월급을 모아 정기적인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 중 주거 마련이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상황 및 기준이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철저한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례자들의 첫 독립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었는데 관련된 청년지원 정책 제도의 지원 기간,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했었는데 결국 다 못했어요.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기준에 맞추려면 이직하지 말고 현재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해요. 근데 저는 이직을 하면서 그걸 못 받게 됐어요. 요새 취업도 어렵고 좋은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취업 먼저 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 채우는 게 어려워요. 조건이나 유지 기간 등을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조건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해요.” (사례자 1)

“독립을 하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모두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무턱대고 모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소득의 절반은 모으고 몇 년 안에 1억 만들자 이렇게요.” (사례자 2)

“저 청년희망적금 해요. 진짜 괜찮은데 이제는 가입 못 해요. 이런 건 금방 없어요. 자산 형성이 진짜 중요한게 저도 자취할 때 돈 못 모았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목돈을 모아야 해요.” (사례자 4)

“요새 청년정책들 많은데 진짜 잘 알아봐야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악착같이 버텨야 해요.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버티고 있어요. 예산 떨어지면 일정 미뤄지기도 하고 상품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속이 잘 안되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잘 챙기고 혜택받을 수 있는지 관심 갖고 잘 찾아보고 잘 챙기면 좋아요.” (사례자 5)

② 독립에 대한 재성찰

사례자들은 현재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재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지금은 숨고르기 하는 시간으로 생각했다. 사례자들 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족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때는 부모님과의 정서적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 독립도 실현해야 진정한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부모님의 간섭과 통제뿐 아니라 정서적 의지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감으로써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으로 여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일을

통해 돈을 벌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취를 꼭 해보라고 말해줘요. 청년일 때 혼자 살아보는 경험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 등록해야 전기 나오고, 가스 등록해야 가스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다 자기가 알아서 등록하고 돈 내야 하는 거 배우게 돼요.” (사례자 1)

“나이 들면 독립해야 해요.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데 주거독립 진짜 중요해요. 저도 결혼해도 엄마랑 계속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좀 분리가 돼야 가족관계도 좋은 거 같아요.” (사례자 4)

“독립이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해도 돈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한테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한국식 가족주의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완전한 독립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사례자 6)

(4) 독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사례자들은 독립을 위한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one-stop으로 상담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정책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공유내용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제공 방법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별로 지원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관련하여 3개의 하위 주제로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중요한 교육과 상담’, ‘쉽고 빠른, 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정보제공’, ‘지원 기준 문턱 높이의 다양화’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중요한 교육과 상담

사례자들은 청년의 독립에 필요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청년 독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와 목돈 마련이며 이때 월세나 전세를 잘 알아보는 법, 계약하는 법,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유용한 저축상품 등 기본적인지만 의외로 청년들이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일원화된 상담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책별 안내 내용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 파악도 어렵고 본인이 해당 기준에 합당한지 판단 내리기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청년정책 기준에 맞는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상담해 주고 기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곳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청년들의 독립시기가 모두 다르고, 이전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의 일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회생활 초년생의 경우 적은 급여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저축을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실제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각 정책마다 지원 기준 및 지원 기간이 조금씩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소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평범한 청년들이 이를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 내린 후 지원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처음 독립할 때 기대뽐뽐하고 나갔는데 집 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집 구하고 보증금 내고 이런 걸 처음해 보니까.” (사례자 1)

“상담창구가 일원화되면 좋겠어요. 청년주택, 청년통장 뭐 이런 거 각각 관계 기관에 연락하면 상담을 해주긴 하지만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 딱 그것만 상담해 주니까요. 보험설계사처럼 여러 가지 회사 보험을 비교해서 나한테 적절한 걸 추천해 주는 것처럼 복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자 1)

“어디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대출받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학교나 어디서 가르쳐주질 않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어설프게 알아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례자 2)

“집 구할 때 같이 가주는 서비스나 알려주는 전문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지인이 인천 전세 사기사건 피해자이거든요. 청년들은 경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쉬운 거 같아요. 계약서 쓰고 집 조건 알아보고 그런 거 도와주는 전문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자 6)

② 쉽고 빠른, 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정보제공

사례자들은 청년정책의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지인의 소개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습득보다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지인의 소개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이 올려준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였다. 이는 요즘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제공의 새로운 플랫폼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각 정책을 소개하는 기관 홈페이지상에서의 정보제공 방법에서 벗어나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짧고 쉽게 설명 및 안내할 방법이 필요하겠다. 처음 청년지원 정책의 존재여부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지인이나 SNS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 유튜브를 활용하여 정책별 지원 기준 설명이 아니라 청년의 거주 지역, 연령대, 소득 및 재산, 고용 형태 등의 개인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유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청년지원제도들은 친구들이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보면 정보 올려주는 사람들 것 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자세히 찾아보면 자격이 다 안 돼요. 요새는 인스타그램 정보가 많아서 기관 홈페이지까지 가서 내용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가구소득도 인원수에 따라 기준 다르고, 용어도 어렵고...내가 뭘 신청할 수 있고 뭘 신청 못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자 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서 요새 청년지원 정책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청년정보포퐁에도 일림 신청해 본 적 있는데 이거보다는 직장 동료나 독립해 본 친구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자 2)

“저는 오빠가 결혼할 때 지원 정책 알아본 거 봤어요. 오빠가 행복주택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구하는 건 아닌데 알아만 보고 있어요.” (사례자 3)

③ 지원 기준 문턱 높이의 다양화

사례자들은 최근 옛날에 비해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마치 그림의 떡인 것처럼 지원 정책은 많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공통의 하소연이었다. 서울시 내에서도 구별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기도 하였고, 청년지원 정책별로 소득 기준이 달랐다. 행복주택도 너무 원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았다. 또 지원 정책의 가지 수에 비해 지원 기간이나 질적 측면을 살펴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자들은 이러한 청년정책이 정말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현실에서 본인들도 낮은 급여,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의 문턱을 조금만 낮추어 주거나 정책의 실효성 증진의 필요성 강조, 이와 더불어 저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과 별개로 일반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높은 물가와 전·월세 부담은 독립한 모든 청년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원 기준 및 지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복주택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증금이 낮은 행복주택도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들은 보증금도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자도 갚아야 하니까요.” (사례자 1)

“저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다행히 요건이 맞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준비하려면 서류지옥이에요. 서류 엄청 내야하고, 다 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저는 이율이 별로이기는 한데 소득 기준은 맞아서 이번에 들었어요. 청년정책들이 매에 한 게 있어요. 어떤 정책은 청년 당사자만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책은 부모님 소득도 봐요. 전국적인 정책이 개별 맞춤형이 되기 어려운 건 알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부모님 소득을 일괄적으로 봐버리니 또 제한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례자 3)

“청년정책 조건이 좀 완화되거나 조건 기준이 통일되면 좋겠어요. 예산 없다고 바뀌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사례자 4)

“청년들 생활비 대출과 관련해서 긴급할 때 도와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 물가도 너무 오르고 서울은 월세도 비싸잖아요.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면 돈을 못 버는 상황도 생기니까. 긴급하게 빌려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햇살론처럼 대출 한도가 낮은 거 말고 3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대출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자 5)



04. 결론 및 제언

1_결론

본 연구는 독립하여 생활하던 청년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온 리터루족의 삶의 경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삶의 특성 및 필요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리터루족 청년 7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관련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례 내 분석 결과

사례 내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생활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생활을 종료하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필요성을 경험하며 가족과 다시 동거하는 상황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학원 진학과 직장 퇴사,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동거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며 혼자서 생활을 감당하느라 외롭고 지치던 독립생활과는 달리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상황은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가정으로 돌아갔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독립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과의 관계와 가정의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며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는 부메랑 키드를 연구한 Copp과 동료들(201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연구에 참여한 모든 리터루족 청년들은 부모와의 재동거 초기에 부모와의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며 편안함과 부담감의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리터루족 생활을 선택한 사례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으나 노년기를 살아가는 부모의 노후와

경제적 상태에 대한 걱정을 대신하기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부모의 보호자로 역할을 하며 부모와 서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았다. 부모와 다시 동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청년도 있었지만, 불만족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리터루족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부모와 계속 동거할 생각은 없으며 언젠가는 다시 독립하기 위해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지난 독립생활을 반추하며 자신이 경험한 독립생활의 어려움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2) 사례 간 분석 결과

다음으로 사례 간 분석 결과 살펴보면, 결과를 통해 총 4개의 주제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독립생활의 단맛, 그리고 쓴맛, 2) 다시 돌아온 부모님 집의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 3) 온전한 독립을 위한 허들 넘기, 4) 독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이다.

먼저 리터루족 청년들은 처음 독립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취생활의 로망을 실현하는 '단맛'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주로 직장과 집이 멀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였고, 사회초년생에게는 교통비 절약 및 직장과 가까운 집이 주는 편리함은 매우 긍정적인 삶의 만족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생활하는 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서툰 집안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직 및 실직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높은 물가와 월세는 점점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등 만만치 않은 현실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관련하여 리터루족 청년들은 주거 등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까다로운 기준에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그림의 떡'인 다양하게 차려있지만 '내 것은 없는' 지원 정책의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 높아진 물가 및 전·월세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덕(201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성인자녀가 독립 후 부모와 다시 동거하게 되는 원인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 부모와 함께 살 주택이 청년 혼자 살던 주택보다 안정적인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을 하고 독립생

활을 시작했던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장점보다는 점차 높아지는 경제적 부담과 고용의 질 저하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리터루족 청년들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본인들의 주거 및 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찾아보고 살펴본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였으며 정착 소득, 나이, 재산 등의 기준에서 본인들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문길 외(2020)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년정책 사업의 수와 같은 양적 측면의 확대가 아니라 각기 상이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적 측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즉 많은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접근하고 이용 가능한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지원 기준 등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고, 저소득 가정 청년 등 취약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터루족 청년들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면서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부모의존 동거의 양가감정과 달라진 가족관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터루족 청년들은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전 독립생활과 비교하여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 낮아져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감소하고, 의지할 사람 및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은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높아진 수준의 부모님의 간섭과 제한된 자유, 집안일 공동부담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거는 기대와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기대의 차이(부모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으니 자녀가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연로한 부모도 더 챙겨주기 바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자녀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으니, 이전처럼 그냥 몸도 마음도 편하게 다시 지내고 싶은 마음), 자녀의 입장에서 시키지 않았으나 자꾸 보게 되는 눈치(생활비 또는 공과금 일부 부담 등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 나이 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 등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삶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 측면과 관련하여 부모자녀관

계의 질이 낮아지는 새로운 가족관계 역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강유진(201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리터러족 청년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는 발달단계 과정에 있다는 특성과 동시에 한 번 집을 나가 독립생활을 했다가 다시 부모님과 생활하게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독립생활의 경험으로 인해 생활비 및 주거비의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수행해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짐을 덜어내고 싶음과 동시에 계속 고생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성인의 자녀를 다시 돌봐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달리 자녀가 심리적·물적으로 도움을 주기 바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기진다.

이와 더불어 청년 리터러족은 독립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재독립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온전한 독립’을 위한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리터러족은 이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계획하여 체계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현실적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청년지원 정책의 철저한 정보 분석 및 기준 확인 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독립을 실현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는 청년의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적 상황이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 및 안정적 임금으로써 규모 있고 계획적인 소비 및 저축생활을 통해 목돈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독립하는 데 있어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 주거비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례자들은 서울시의 청년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종류는 다양하나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 정책은 없어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부 이용하다 이직 등의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책의 종류를 확대하기보다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과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리터러족은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osi(2020)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실직 및 경제 상황 악화로 다시 부모집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우울증상이 더 증가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유진(2016)의 연구 결과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의 방향이 일방적이냐 쌍방향적이냐에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독립생활에 성공하고 성인으로써의 발달 과정상 과업을 건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정서적 독립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리터루족 청년들은 독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으로 ‘기본에 충실한, 그러나 중요한 교육과 상담’, ‘쉽고 빠른, 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정보제공’, ‘지원 기준 문턱 높이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상담의 충분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제안한 정세정 외(2020)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청년정책의 사업 실효성 진단과 관련하여 청년 주거 공급의 경우 높은 비용소요에도 불구하고 수혜율이 낮아 청년들이 체감도가 낮게 나타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기현 외(2020)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청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독립생활을 할 때 준비 사항과 관련된 일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및 경험 부족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지 마련 및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실제적 정보(전·월세 계약 방법,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 법 지식, 기본적인 살림살이 방법 등)를 교육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해당 서류구비는 어떤 방법에 의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정책을 상담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아무도 이 서비스를 알거나 이용해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개별적인 청년정책 사이트를 찾아가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세부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내용이 복잡하고 해당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는 청년 개별에 맞게 각자의 조건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상담창구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 청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의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특성상 청년들이 자주 찾아보는 인스타그램

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내용 및 전문기관의 정보, 개별적인 지원 사례 제시 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개발과 SNS를 활용한 정보접근성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청년정책의 기준이 정책별로 모두 다르고 복잡하며 필요 서류도 너무 많아 자신이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지 판단도 어려웠지만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신의 소득, 재산, 나이 등의 기준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정책 기준의 통일성 추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청년정책별 지원 기준의 차별화 등을 통해 혜택의 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_정책 및 서비스 제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터루족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리터루족의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독립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때, 부모님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생활 당시 자유롭게 모든 생활을 누리다가 부모님과 동거하게 되면서 부모의 간섭 및 통제 상황이 힘들게 느껴졌고, 청소 및 설거지 같은 집안일에 기여할 것을 강요받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정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부모와의 건강한 정서적 독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중요하겠다. 현재 '서울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년만 주요 대상이며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상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년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가족관계 증진 및 정서적 독립의 측면 강조한 가족치료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상담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쉽고 빠른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성 증진 등이 반영된 가족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독립을 준비할 때 관련된 기본적인면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필요한 정보를 교육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터루족 청년들은 처음 독립을 준비할 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방법, 전·월세 사기 피하는 방법, 서류 확인하는 방법, 공과금 내는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의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주로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년 리터루족은 이후 온전한 재독립을 실천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고 준비하길 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청년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독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에 대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주거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확대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에 독립 및 재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계약, 주거지 선택의 고려 요소, 전·월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확인 사항, 관련 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관리비 및 공과금 산정과 납부 방법, 일반적인 집안일 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청년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개별 정책별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리터루족은 본인들이 높은 물가와 주거비 문제를 완화시키고 독립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 관련된 청년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이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원 기준의 복잡함, 지원 대상의 모호함, 복잡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나이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계산되고 처리되어 어떤 종류의 정책들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 종합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온라인 자동 처리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또한 복지 및 금융정책, 주거정책 등 세부 정책별로 나열되어 제시되고,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가 중요하겠다. 관련하여 현재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정보풍풍 등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해당 기관 및 사이트 이용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 이와 더불어 자격 입력 및 판단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종합상담 코너 강화, 이해도를 높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의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외에 청년정책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고, 이때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청년정책 정보 제공과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대성이 반영된 다양한 채널 개발이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에서도 청년 리터루족은 독립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방법처럼 접근이 쉽고 알기 쉽게 안내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다수의 청년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방문하여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쉬운 접근과 개별적 정보 취득, 자발적 습득 및 쉬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소통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용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 및 지원 기관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이해력 도모를 위한 실제 지원 사례의 정리 및 소개를 통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청년지원 정책 기준의 기본사항 정리 및 지원 기준 규정의 다양화가 필요하겠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터루족 청년들이 독립생활에 있어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된 청년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별로 지원 가능 나이, 소득, 재산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고, 대다수 저소득 청년만 지원 기준에 부합될 수 있어 본인들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지원은 받을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달라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도봉구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하기도 하는 등 지역에 따른 청년 나이도 달라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정책에 따라 기준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기도 하여 혼란이 가중된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자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별 고려 사항 및 조례의 근거 등 지원 기준 관련 차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통해 청년들의 이해 도모 및 혼란 감소를 위

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 외에 청년지원 정책의 시대성 반영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서울시 청년의 욕구와 정책의 목표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작업도 중요하겠다. 또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유사정책 존재, 지원 자격의 상이함 등의 경우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청년대상 주요 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패키지(일자리, 생활안정, 교육복지)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청년일자리, 주택정책, 복지·문화 영역에서 여러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서울시의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이 지원 대상이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 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로 만 18세~34세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두 정책 모두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한 유사지원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의 나이 및 소득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중복 사업의 조정을 통한 정책의 혼란 감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사각지대 개발과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지향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외에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지원 정책은 많지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청년지원 정책이 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어 다수의 일반 청년은 이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청년지원 정책의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two-track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선별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차별 없이 일반 청년들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two-track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재산 및 소득 기준, 지원보장 기간 등의 조건 규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의 경우 해당 사항을 적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지원 기준의 제외 또는 축소 등을 통해, 그리고 지원 금액의 차등 등을 통해 다수의 일반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예를 들어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를 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실시 및 이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을 통한 선택권 제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차등화 등)이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청년들의 독립생활 가운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확인을 통한 ‘SOS긴급지원’과 같은 응급지원 형태의

정책도 필요하겠다. 즉 패스트 트랙 심사를 거쳐 선지원을 한 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지원 규정에 맞는지 후판단을 적용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제도 중 긴급 복지지원제도처럼 위기 상황에 대해 선지원을 하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사후확인을 하여 청년들이 독립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를 통해 리터루족 청년들이 독립생활 실패를 벗어나 계획적이고 준비된 독립을 이루어 발달 단계상의 건강한 과업 달성과 더불어 성인으로써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수행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독립 및 재독립의 안정적 수행 및 유지를 위한 청년지원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겠다. 우리 사회는 부모동거가구, 1인 독립가구, 부모와 재동거가구 등 가구 유형의 다양화와 더불어 건강한 청년기의 이행 및 발달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 청년 일자리 및 주거의 문제라 여겨진다. 이에 청년의 온전한 독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보장과 주거빈곤의 문제 완화를 위한 안정적 주거지원 정책이 중요하겠다. 이외에 청년의 독립 또는 독립이 불가하여 계속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에도 심리·정서적 건강을 강화하여 본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건강한 정신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정책뿐 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소득이 높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시기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 강화, 독립하는 1인 가구뿐 아니라 재독립을 하고자 하는 리터루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다양화, 청년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 및 활동의 장 확대와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관련요인: 세대 간 지원교환, 가족부양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387-403.
- 강현선, 2016, 「성인기자녀의 부모의존 동거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 202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문길, 오선정, 김형주, 류승한, 서복경, 김태완, 김성아, 곽윤경, 정세정, 박미선, 김유빈, 김세움, 김주영, 남재욱,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 남기찬, 조성철, 박진한, 오상봉, 정현미, 윤태영, 조형근, 박수민, 류기락, 이지혜, 강예은,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의 삶과 소득 보고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승연, 변금선, 김상일, 오은주, 김진하, 김호기, 박민진, 박동화, 임아름, 박나리, 이용호, 이동준, 조민서, 2022,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서울시서울연구원.
- 김유경, 2018, 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 79-98.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혜, 여정성, 2020. 쉼거루족 부모와 비쉼거루족 부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소비자학연구』, 31(1), 223-242
- 김진우, 2012,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콜로키움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신애, 2021. 저(低)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KOSTAT 통계플러스』, 13, 24-47.
- 박주영, 유소이, 2018. 부모의존 독신성인자녀를 둔 비은퇴자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평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57-77.
- 박지현, 2020. 청년세대 주거 빈곤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43-159.
- 반수진, 2019. 「부모의존 미혼독신들의 생활양식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의회, 2014.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누가 켄거루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 연구」, 24(4), 29-53.
-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누가 켄거루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 연구」, 24(4), 29-53.
- 안정신, 최명애, 2019. 의존적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의 양가감정이 자녀분리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0(1), 71-82
- 이영분, 이응우, 최희정, 이화영, 2011, 한국사회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학」, 31, 5-30.
- 정기덕, 2018,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원인에 관한 연구: 미혼성인자녀와 기혼성인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세미, 2018, 「켄거루 가족의 관계유형화 및 예측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해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저택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동거 현황 및 분석들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rundel, R., & Lennartz, C., 2017, "Returning to the parental home: Boomerang moves of younger adults and the welfare regime contex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7(3), 276-294.
- Copp, J. E., Giordano, P. C., Longmore, M. A., & Manning, W. D., 2017. "Living with parents and emerging adult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Issues*, 38(16), 2254-2276.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New York: Sage publications.
- Fingerman, K. L., 2017. "Millennial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of the new young adulthood for midlife adults", *Innovation in Aging*, 1(3), igx026.
- Morse, J. M., 2000, "Determining sample siz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1), 3-5.
- Sandberg-Thoma, S. E., Snyder, A. R., & Jang, B. J., 2015, "Exiting and returning to the parental home for boomerang ki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 806-818.

South, S. J., & Lei, L., 2015, "Failures-to-launch and boomerang kids: Contemporary determinants of leaving and returning to the parental home", *Social Forces*, 94(2), 863-890.

Stone, J., Berrington, A., & Falkingham, J., 2014, "Gender, turning points, and boomerangs: Returning home in young adulthood in Great Britain", *Demography*, 51(1), 257-276.

Tosi, M., 2020, "Boomerang kids and parents' well-being: adaptation, stressors, and social norm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6(3), 460-473.

Ward, R. A., & Spitze, G. D., 2007, "Nestleaving and coresidence by young adult children: The role of family relations", *Research on Aging*, 29(3), 257-277.

권승현, 조율, 유민우 기자, 2023년 02월 09일, "엄동설한에 따름아도보족- 고물가, 청춘을 할퀴다",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901070821305002>.

권혁진 기자, 2023년 9월 12일, "지하철역에 뜬 도봉구청장 ... "민원받습니다.", *뉴스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12_0002447404

이우림 기자, 2023년 03월 09일, "'캥거루 탈출하려 캥거루 됐다' 부모님 집 눌러앉은 30대 사연",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787>.

잡코리아, 2020년 9월 14일, "직장인 62.7%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느껴", *스카이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

잡코리아, 2021년 2월 9일, "성인남녀 55.8% "나는 캥거루족", *한국대학신문*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634&schCtgr=0&schTxt=2566&Page=1

하수민 기자, 2022년 08월 05일, "자취방 빼고 부모님 집 가요"...물가 뛰자 2030 '리터루족' 등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413424286117>.

작은연구 좋은서울 23-10

리터루족(Returoo) 삶의 경험 사례연구
: 다시 돌아온 캥거루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